

IV. 전문가 기고

2 웹툰 IP 전성시대

김정환(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보고 듣고 만지는 웹툰 IP

2023년 6월과 9월, 네이버웹툰은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와 더현대 서울에서 <마루는 강쥐>, <나한 남자> 공식 팝업스토어를 두 차례 운영했다. 1차에서는 인형, 가방, 키링 등 약 26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고, 2차 때는 500여 종으로 확대했다. 하루 최대 6,200여 명, 두 차례의 팝업스토어에 총 11만 8,000여 명이 방문했다. 1인당 최대 결제액은 116만 원, 2차 팝업스토어 매출은 1차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에서의 팬덤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돼 작품의 캐릭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카카오펀터테인먼트도 2023년 5월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에 이어 11월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표 1] 국내 웹툰 원작 해외 영상화 사례

자료: 각사 보도자료 취합 및 정리

지역	제목	포맷	채널	방영시기
중국	문유	영화	극장	2022년 7월
	문유	애니메이션	빌리빌리	2022년 9월
	가우스전자	드라마	아이치이	2023년 2월
	물어보는사이	숏폼드라마	콰이서우	2023년 2월
	오!주예수여	드라마	빌리빌리	2023년 4월
	이두내!	애니메이션	빌리빌리	2023년 4월
일본	바른연애길잡이	단편드라마	TV Asahi(공중파) TELESA(OTT)	2023년 1월 2022년 12월
태국	내ID는강남미인	드라마	GMMTV	미정
	한남동케이하우스	드라마	-	미정

“웹툰 원작의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할 정도로
큰 성과”

웹툰의 IP(지식재산권)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 중이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OTT 영상 콘텐츠로, <D.P.>, <지금 우리 학교는>, <무빙>, <비질란테> 등 웹툰 원작의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할 정도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두나!>가 공개된 날 넷플릭스의 일평균사용자수(DAU)는 260만 명을 기록하며, 전주동기대비 2.1% 증가했고 일본, 홍콩, 카타르 등 해외 9개 국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활발하게 소비됐다. <마스크걸>은 공개 직후 일주일간 74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10 1위를 기록했다. <무빙>은 전체 OTT 흥행 순위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국내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입지를 탄탄하게 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는 국내시장에서 출시돼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도 하지만 현지 시장에서 현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표 1]은 국내 웹툰 작품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서 현지화된(혹은 예정인) 사례들이다. 최근 중국에서의 유통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 OTT를 넘어 콘텐츠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웹툰

한국콘텐츠진흥원(2021)에 따르면, 국내 웹툰산업은 2017~2020년 동안 연평균 40.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중 에이전시 매출액은 2020년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5,3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에이전시의 주요 역할이 웹툰 작가들의 IP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웹툰 IP의 성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체 만화시장에서 디지털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40.4%로 웹툰이 전체 만화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콘텐츠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예로 든 OTT 영상 콘텐츠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웹툰 원작 영상물의 탁월한 성과는 여러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네이버웹툰(2023.10.31.)에 따르면, 자사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글로벌 Top 10에 진입할 확률은 100%였으며, 2019년~2023년 출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네이버웹툰이 원작인 경우는 26%에 달했다. 웹툰 원작 드라마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웹툰 원작 영상물의
탁월한 성과는 여러
통계로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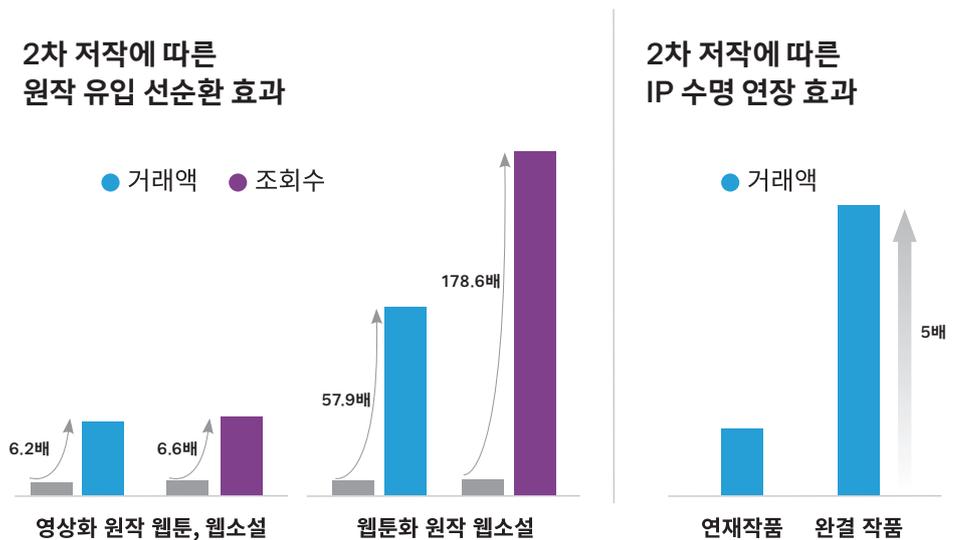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평균시청률은 약 34%, 최고시청률은 약 39% 높게 나타난 것”

성적표가 보다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 방송사 드라마를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시도해 봤다. 2021~2023년 TV스크린을 통해 방송된 범죄/스릴러/미스터리 장르 드라마 50편을 분석한 결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평균시청률은 7.88%, 최고시청률은 10.42%였으며, 웹툰을 원작으로 하지 않은 드라마 평균시청률은 5.88%, 최고시청률은 7.48%로 나타났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평균시청률은 약 34%, 최고시청률은 약 39% 높게 나타난 것이다¹⁾.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서적, 게임 등의 확장은 주변 콘텐츠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원작 콘텐츠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 <무빙>의 원작은 드라마 공개 후 매출이 35배 증가했으며, <사냥개들> 역시 넷플릭스 방영 전후 10일간 평소 대비 14배 거래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림 1] 2차 저작물의 원작 유입 효과

자료: 네이버웹툰, 2023.10.31.



웹툰의 영상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웹소설의 웹툰화, 영상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 공개일 전후 30일 비교 시, 원작 웹툰/웹소설 거래액은 평균 6.2배, 조회 수는 약 6.6배 상승했다. 원작 유입 선순환 효과는 웹소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웹툰 공개일 전후 30일 비교 시, 원작 웹소설 거래액은 평균 57.9배, 조회 수는 178.6배 상승했다.

1) 평균시청률과 최고시청률 모두 평균치임. 웹툰을 원작으로 2차 저작된 장르가 주로 로맨스, 범죄/스릴러/미스터리로 확인되는데, 로맨스 보다는 시청자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범죄/스릴러/미스터리 장르를 분석함. 드라마로 2차 저작이 활발하게 진행된 최근 3년치 데이터를 분석함

“최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확장 사례도
증가”

3. 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웹툰 사업자들은 2014년을 전후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웹툰 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시된 이래 사업자들이 약 20여 년의 업력을 가졌다면 절반 이상을 해외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사업자와의 제휴나 인수를 통해 국내 웹툰 사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용자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는 이용자뿐 아니라 창작자 확보 전략과도 연결된다. 웹툰 플랫폼은 n개의 취향이 공존하는 플랫폼인데, 글로벌로 진출하며 무한대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확장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 남미 시장에서의 확장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지위에 맞게 현지 웹툰, 웹소설 콘텐츠들이 2차 저작되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거꾸로 국내에서 소비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표 2]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IP 확장 사례

자료: 매일경제, 2023.1.31.

제목	언어	조회수(회)	타깃 시장
부트캠프	영어	2,600만	북미(영화)
블러바드	스페인어	1억 500만	멕시코(TV시리즈)
퍼펙트 라이어스	스페인어	7,500만	스페인(영화)
플로마이보이스	스페인어	2,500만	스페인(영화)

최근 LA에서 가장 큰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웹툰 IP가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수십 종의 작품들은 표지가 잘 드러나게 배치돼 있었으며, 최근 웹툰 원작 작품을 찾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웹툰이라는 생소한 장르가, 니치(niche)한 콘텐츠 수요가 해외시장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다.

웹툰 콘텐츠 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김아현·김선영, 2023)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투자자들은 기업 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인 요인보다 콘텐츠 IP 확보 여부,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IP 전성시대에 IP를 어떻게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된 것이다.

**[그림 2] 미국 LA 반스앤
노블에 배치된 웹툰 원작
서적들**

자료: 저자 촬영



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가 성공을 일정 부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지표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실 웹툰 IP 기반 콘텐츠 확장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자들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야 할까?

무엇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국내 웹툰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해 줄 것이며, 그러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현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도 필요해 보인다.

IP의 생명력과 호흡이 더 길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호흡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웹툰 IP 전성시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웹툰 IP 확장은 결국 창작자 권리 보호에서 출발한다. 불법 유통을 비롯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생태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가 성공을 일정
부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지표를
다양하게 확인”

김정환(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일하며 건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웹툰 창작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기술이 바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참고자료

- 김아현, 김선영, 문화와융합, 45(5), 웹툰 콘텐츠기업 투자결정 요인 연구, 2023.
-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 기반 IP 확장의 창작자 지원 효과, 2023.10.31.
- 매일경제, 영화·드라마 제작 나선 네이버…“누적 콘텐츠 10억개가 힘”, 2023.1.31.
- 머니투데이, 마스크걸→무빙→이두나…K웹툰이 대세, 적자 탈출 돌파구 찾나, 2023.10.30.
- 머니S, 영상·게임·굿즈까지… ‘웹툰 IP’ 확장 나선 네이버, 2023.9.1.
-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백서, 2021.